

# 편의점 양극화 시대... 고급소주 '플렉스' vs 삼김 '자린고비'

〈소비자량〉

〈삼각김밥〉

CU 마늘·고추 등 소포장 '싱싱생생' 15종 시리즈가 900원~4500원

GS25 PB상품 '리얼프라이스' 취급 병당 1만4800원 '원소주' 출시 예정

세븐일레븐 美서 만든 '토끼소주'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 '소주한잔'

편의점에 '가성비'와 '고급화'가 동시에 나타났다.

최근 편의점 업계는 고물가 현상에 발맞춰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PB상품을 잇달아 출시해 큰 호응을 얻었는데, 편의점 방문 고객의 평균 구매액 7500원을 훌쩍 넘는 상품 판매에서도 호실적을 거두는 중이다. 주로 식료품, 즉석식품 품목에서는 가성비, 고급 주류 등 사치재에서는 고급 상품이 인기다.

자신만의 우선순위에 따라 명품을 사기도, 가성비 상품을 사기도 하는 양극화된 소비자를 뜻하는 '앰비슈머(ambisumer)'가 편의점 업계를 흔드는 셈이다.

14일 메트로경제 취재를 종합해보면, 편의점 업체들은 최근 가성비 PB상품과 고급 상품을 동시에 출시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물가지수는 지난해 12월보다 4.2%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3.4%를 웃돌았다. 39개 외식 품목 전체가 오른 가운데 자장면(6.3%), 떡볶이(6.0%), 칼국수(5.8%) 등 간편히 끼니를 대신하는 품목의 상승률이 컸다. 24년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편의점 업계는 주이용고객층인 2030세대 1인 가구가 주로 식료품과 간편식



모델들이 세븐일레븐에서 판매 하는 고급 증류 소주 '토끼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세븐일레븐

을 구매하는 데에 착안해 초저가 상품을 잇달아 출시 중이다.

CU는 마늘, 고추, 대파, 모듬 쌀, 양배추, 감자 등을 소포장한 '싱싱생생' 15종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삼겹살, 향정살, 가브리살 등 한돈 부위와 소고기 부채살도 소용량으로 출시한다.

싱싱생생 시리즈의 가격은 900원(팽이버섯, 양배추 4분의 1통 등)에서 4500원 수준이다. CU에 따르면 업계 평균가 대비 30% 저렴한 수준으로 농축산물 유통채널인 '만인산농협산지유통센터'와 직접 거래해 유통 마진을 최소화했다.

GS리테일은 GS25에서도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GS더프레시의 PB상품 '리얼프라이스'를 취급하기로 했다. 리얼프라이스는 2017년부터 GS더프레시가 중소업체 상품을 저렴히 판매하는 초저가 브랜드다. 5월 말 기준 약 70개 업체의 300여 가지 상품을 판매 중이다.

이보다 앞서 GS25는 물가상승률이 크

게 오르기 시작한 3월 '실속픽(Pick)' 시리즈를 론칭하고 김밥과 계란, 쌀 등을 판매했다. 실속 시리즈 계란과 쌀은 5만 개 한정판으로 판매해 호응을 얻었다.

세븐일레븐도 지난달 CJ제일제당과 컬래버레이션해서 '제일맛집 시리즈 시즌2'를 출시했다. 제일맛집 시리즈는 1020세대 고객을 겨냥해 2월 첫 선을 보였는데, 이번 시리즈에서는 가성비를 앞세워 3종을 출시했다.

팬데믹 기간 이어졌던 보복소비에서 촉발한 '고급화'도 여전히 트렌드다. 최근 편의점 업계는 '고급 소주' 전쟁 중이다.

가수 박재범이 출시해 화제를 모은 증류식 고급 소주 '원소주'는 출시 후 편의점 업계가 경쟁적으로 단독 판매를 하고자 경쟁한 바 있다. GS25는 원소주 편의점 단독 판매권을 따낸 후 7월 정식 판매 전 부산 등에서 팝업스토어를 열고 홍보에 열 올리고 있다. 원소주 오리 지널은 병당 1만4900원인데, 가격을 내



고객이 GS25에서 리얼프라이스 상품을 고르고 있다. /GS리테일

려 출시 예정 중인 '원소주 스피릿'도 일반 소주 보다 비싼 가격으로 출시 될 예정이다.

세븐일레븐도 지난달부터 뉴욕에서 온 한국식 전통주 '토끼소주' 판매에 들어갔다. 미국인이 만든 한국 전통소주로 유명한 제품으로 원소주와 함께 고급 소주로 분류된다. 7월부터는 가수 임창정의 히트곡 제목을 딴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 '소주한잔'을 판매한다. 이마트24도 올해 '일품진로'와 '이강주29'를 프리미엄 소주 라인업에 추가한다.

최근 편의점 증류식 소주 판매량은 상승세다. 지난달 기준으로 이마트24에서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판매량이 132% 증가했고, 세븐일레븐은 100%, CU는 71.8%, 지에스25는 38%의 판매 신장률을 기록했다.

가성비 상품과 동시에 프리미엄 상품을 소비하는 현상은 MZ세대의 소비문화 중 한 가지다. 이른바 '플렉스 자린고비' 등으로 불리는 앰비슈머는 자신

이 큰 가치를 부여하는 특정 상품에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 것에 대해서는 가성비를 꼼꼼히 따지는 특성을 갖는다. 업계 관계자들은 양극화된 소비 성향이 끼니를 해결하기 위한 즉석식품과 식료품, 주류 등을 통해 뚜렷하게 드러나는 중이라고 설명한다.

오픈서베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번해 고객의 구매경험이 증가한 품목은 김치·절임류가 1위, 신선식품류가 2위였는데 3위는 상온절임 판매하는 와인, 위스키 등 고급 주류였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물가가 급상승하면서 편의점 도시락이 직장인 등의 점심 식사 메뉴로 떠오르는 모양새인데 특히 저렴한 상품 매출이 눈에 띄는 편"이라면서도 "와인, 위스키와 같은 고급 술도 꾸준히 매출이 상승하고 있어 음식에서는 가성비, 주류에서는 프리미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유럽 출장간 신동빈... 롯데, M&A 신호탄?

프랑스·독일 등 기업관계자와 회담 지난달 5년간 37조 집중투자 예고 대규모 투자인수 계획 나올 가능성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코로나19 이후 멈춰선 출장을 본격 재개하면서 롯데의 신사업 전개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신 회장이 10여 일간 프랑스·독일·영국 등 유럽 현지의 기업 관계자들과 회담을 갖기 위해 출국했다.

현재 신 회장의 명확한 일정과 사업 파트너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재계에서는 이번 신 회장의 출장이 신사업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지난 4월 신 회장이 미국 출장을 다녀온 뒤 롯데는 이사회를 열고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콧(Bristol-Myers Squibb) 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장 인수를 의결했다. 당시 공장 인수는 해당 공장을 4월 출장길에 살펴본 신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신성장 동력을 바이오·헬스케어 사업으로 정하고 이번에 '롯데바이오로직스'와 '롯데헬스케어'를 설립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 회장이 적극적으로 M&A 매물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부터 1년간 롯데가 인수 및 지분 투자 건수는 총 12건으로 투자금만 총 1조원에 달한다. 또 지난달 24일 핵심 산업군에 총 37조 원을 집중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출장을 통해 대규모 투자 인수 계획을 내놓을 가능성도 높다는 해석이다.

현재 롯데그룹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올해 바이오·헬스케어 등을 신성장 동력으로 공식화한 뒤 경쟁력 강화를 추

진하는 중이다. 앞서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은 주주총회에서 바이오·헬스케어 사업을 그룹 차원에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신동빈 회장의 출장과 관련해 M&A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건 그룹 차원의 신사업 경쟁력 강화 의지가 남다른 데다, 최근 투자 본능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1년 동안 롯데 계열사의 100억 원 이상 인수 및 지분 투자 건수는 10여 건에 달한다. 지난달 24일에는 헬스 앤 웰니스, 모빌리티, 지속가능성 부문을 포함해 화학·식품·인프라 등 핵심 산업군에 5년간 총 37조 원을 집중 투자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재도약에 기여하는 동시에 그룹의 추가 성장 기회를 찾겠다는 것이다.

신동빈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미래에 더욱 중요해질 역량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공격적인 투자를 강조한 뒤, 1월 말 개최한 상반기 '밸류 크리에이션 미팅'(옛 사장단 회의)에서도 "신규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김서현 기자

## 美 자이언트스텝 예상에... 中 "금리 내려라"

### ● 차이나 뉴스 & 리포트

오늘 인민은행서 금리인하 나설 듯 "정책 금리인하, 경제에 도움 될 것"

중국이 한 번 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다. 당초 예상보다 금리 인하 움직임이 빨라진 것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최소 0.5%포인트 이상 올릴 것으로 예측되면서다.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이상 인상하는 것)'까지도 예상되면서 이번이 중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겠냐는 인식이 강해졌다.

14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따르면 현재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금리는 연 2.85%다.

MLF는 인민은행이 시중에 자금 공급을 통해 유동성과 금리를 조절하는 정책 수단이다. MLF 금리가 인하되면 금융기관의 대출 원가가 낮아지고,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 R)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민은행은 매달 15일 MLF 금리를 결정하고, 20일 LPR을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인민은행이 오는 15일 MLF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

다. 주요 도시 봉쇄에 따른 경기 충격이 예상보다 크데다 미국이 이번주 자이언트스텝을 밟을 것이 유력해지면서다. 만약 MLF 금리가 인하된다면 올해 1월 이후 5개월 만이다.

홍콩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당수석 중화권 경제학자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우리는 50% 이상의 가능성으로 MLF가 10bp 인하되고, LPR 역시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5월 산업생산과 소비재판매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등 경제 지표 악화는 이미 예고됐다"며 "정책 금리 인하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도 크지 않다. 중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1%로 미국 8.6%는 물론 주요국 대비 크게 낮은 상황이다.

금리 인하에 따른 자본 유출 역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다.

현재 중국 10년물 국제 수익률은 2.7845%로 미국 3.25%를 밑돈다. 채권시장에서는 여전히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지만 본토 주식시장은 이번달 외국인 자금이 순유입으로 돌아섰다.

/안상미 기자 smahn1@